



The New Color of Money
Safer. Smarter. More Secure.

www.moneyfactory.gov/newmoney

즉시 보도 요망
2006년 3월 2일

연락처:
Dawn Haley 또는 Claudia Dickens, 202/874-3019
조폐국

Rose Pianalto 또는 Jeffrey Smith, 202/452-2955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보관실, 202/406-5708
미국비밀정보국

Penny Kozakos, 202/530-4887
New Color of Money Media Support

오늘부터 새로 도안된 \$10 신권 유통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미국비밀정보국 직원들
국립문서보관소에서 \$10 신권 처음 사용**

워싱턴 D.C. – 2006년 3월 2일 – 신권 도안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새로 도안된 \$10 신권이 오늘 미국 헌법의 보관 기관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 당일,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미국비밀정보국의 직원들은 국립문서보관소 판매점에서 포켓형 미국 헌법 사본을 구입하기 위해 \$10 신권을 사용하였습니다. \$10 신권의 앞면에는 미국 헌법에서 발췌한 “We the People”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 도안도 지폐 앞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 도안된 \$10 신권이 발행되는 날, 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전세계 사업체와 일반인에게 유통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에 신권을 이송하는 날입니다. 신권은 미국에서 즉시 유통되기 시작한 후 국제 은행들이 연방 준비 은행에 \$10 신권을 발주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수일 내지 수주 후에는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유통될 예정입니다.



안나 카브랄(Anna Cabral) 미 재무부 출납국장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위조 지폐범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미국 정부는 7년에서 10년마다 지폐 도안을 새로 변경할 것이며,

최첨단 보안 기능이 적용된 신권 지폐를 유통시킬 때마다 계속해서 미국 화폐의 온존성을 보호하고 사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 신권은 오렌지, 노랑, 빨강의 희미한 바탕색과 소비자 자신이 보유한 지폐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쉬운 보안 기능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색상을 이용하여 지폐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바탕색의 사용은 지폐 도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지폐 위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각 지폐 종류마다 각기 다른 바탕색을 사용하여 누구든지 – 특히 시각 장애인들이 – 쉽게 지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방 준비 은행 운영 및 지불 시스템의 마이클 램버트(Michael Lambert) 부국장은 “\$10 신권의 도안 요소와 향상된 보안 기능을 인지하는 것과 더불어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권의 액면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새로운 도안의 \$10 지폐가 공개된 이래, 미국 정부는 전세계 사업체, 관련 조직 및 소비자들에게 신권 발행을 인지시키기 위해 \$10 신권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교육 자료를 1,000 만부 이상 배포하였습니다.

래리 펠릭스(Larry Felix) 조폐국 국장은 “새로 도안된 지폐를 유통시킬 때마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모두 일상적인 상거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활하게 구권에서 신권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이상 현금 자동 인출기와 자판기 제조업체들과 소매업, 소규모 사업체 및 국제 정부가 함께 새로 도안된 \$10 신권의 발행일에 맞춰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록관리 전문가 알렌 웨인스타인(Allen Weinstein)은 “미국 헌법의 영구 보관 기관인 국립문서보관소는 미 재무부가 \$10 신권에 헌법을 적용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 신권은 \$20 신권 및 \$50 신권과 마찬가지로 현금 취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의 최첨단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변색 잉크:** \$10 지폐를 비스듬히 기울여 지폐 앞면 우측 하단에 인쇄된 숫자 “10”이 구리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 **숨은 그림(음화):** \$10 신권을 빛에 비추어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 재무 장관의 모습이 그의 대형 초상화 우측에 희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음화는 지폐 앞뒤 양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 신권에 타원형의 빈 공간을 도입하여 음화의 위치를 찾기가 더욱 용이해 졌습니다.

- **안전띠:** \$10 신권을 빛에 비추어 지폐 용지에 “USA TEN”이라는 작은 글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조그만 띠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띠는 초상화 우측에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비밀정보국의 수사국 부국장 브라이언 K. 나겔(Brian K. Nagel)은 "우리는 항상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이 위조 범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폐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힘들게 번 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려면 일반인 스스로가 신권의 강화된 보안 기능에 익숙해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달러화의 위조 빈도는 향상된 보안 기능, 적극적인 범 집행과 위조 지폐에 대한 대국민 교육 등의 결집된 노력으로 그 빈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10 신권 10,000 매당 1 매 미만의 비율로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아직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위조 지폐의 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995 년 이후,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미국에서 적발된 모든 위조 지폐의 1% 미만에서 2005 년에는 약 52%까지로 증가하였습니다.

미 달러화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향상된 지폐 도안과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는 2003년 \$20 신권과 2004년 \$50 신권의 뒤를 이어 \$10 신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사업체, 금융 기관, 각종 직업 관련 협회, 시민 단체,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교육 자료, 포스터, 사용 간편한 “테이크 원(Take One)” 카드, 홍보 비디오, CD-ROM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현금 취급자나 소비자가 신권의 특징을 숙지하고 위조 지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24 개국 언어로 되어 있으며 주문하거나 www.moneyfactory.gov/newmoney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03 년 이후, 현금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향상된 신권 보안 기능 관련 교육에 이용하려는 각 사업체, 소비자, 업계 협회로부터 7,000 만부 이상의 교육 자료를 주문 받았습니다.

###